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괴애는 세조 때 학자 김수온(金守溫)이다. 옛글을 많이 외우기로 괴애 위에 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기억력이 좋은 분이다. 책을 구하면 낱장을 찢어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며 마상(馬上) 측상(厠上)에서 외웠다. 신숙주에게 임금이 내린 『고문진보(古文眞寶)』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려왔다. 돌려준다는 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신숙주가 찾아가 방문을 열었더니 그 귀한 책 낱장을 찢어 천장과 벽에 도배질해 놓고 누워 이를 외우고 있었다. 쥐는 잠을 자지 않기에 그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는 없지만, 소보다야 늦게 일어날 수 없어 평생 축시(2시~4시)에 일어난다는 괴애다. 산마(散麻)처럼 어지러웠던 정사를 가지런히 가렸다는 괴애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 남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새벽에 부지런함의 소득이다.

요즈음 기업체들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을 권장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구나 중동에 비해 조기 문화권에 속한 한국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 유전적 자질을 타고난 것 같다. 십 수 년 전 로스 앤젤레스 한국 영사관 앞에 미국인 야채상들이 연좌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현수막에는 “한국의 야채상 고 홈!” 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침밥을 위해 신선한 야채를 가게머리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새벽 어둠이 가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미국인 야채상인들이 한국의 야채상인들과 이 조기경쟁을 감당 못해 손을 들고 ‘고 홈’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차 산업시대에 체질화된 이 조기 유전질이 2차 산업화 과정에서 무더져 오늘에 이르렀다. 문제는 잠재된 유전질을 자극하는 일일 것이다.

- ① 지식과 지혜
- ② 아침형 인간
- ③ 조기 경쟁
- ④ 잠재된 유전질

문 14.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만 잘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더 이상
- ②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있어서
- ③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있어 서구란 전면적으로 배우고 배껴야 할 대상이다. →에게
- ④ 한때는 가출도 했었지만 점차 마음을 잡았고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다. →했지만

문 15.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한국의 문양이 형성된 자연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환경은 사계의 구분이 뚜렷한 전형적인 온대지역이며, 지형 또한 노년기의 완만한 구릉 지대여서 선율적이고 곡선이 많다. 따라서 자연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애호와 순응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었고, 성품 형성에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 자연에 친숙했던 한국인은 낙천적이며 (㉠)인 생활에서 우리나라 가식이 없는 형태, 즉 인위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문양을 형성하였다.

.....(중략).....

셋째, 한국의 종교는 선사시대부터 민중의 생활을 지배해 온 무속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무속은 유교, 불교, 도교 등과 같은 외래 종교가 한국의 문화를 지배한 후에도 한국문화사의 저변을 형성하면서 민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의 문양에는 무속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종교, 특히 불교의 전래는 한국 문양의 소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한국 문양의 소재에는 불교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츰 본래의 신앙적 의미는 희박해지고, 용도에 따라 변형, 또는 (㉣)되기도 하며, 오늘날의 장식 문양으로 발전되었다.

- 고선우, 『한국의 문양』 -

- | | | |
|---|-----|-----|
| | ㉠ | ㉣ |
| ① | 수동적 | 일반화 |
| ② | 체념적 | 구체화 |
| ③ | 초월적 | 특성화 |
| ④ | 달관적 | 단순화 |

문 16. ‘그, 저, 거시기, 뭐야, 이제, 인자’ 등과 같은 구어체 표현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이나 상황 또는 대화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이된다.
- ② 이들은 상대방의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의도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 ③ 대부분 이들은 단일한 음성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 ④ 이들은 화자의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이야기 내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으려 할 때 사용된다.

문 17.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한자성어는?

不能舍己從人, 學者之大病, 天下之義理無窮, 豈可是己而非人?
- 『退溪全書』 -

- ① 不恥下問
- ② 切磋琢磨
- ③ 近墨者黑
- ④ 曲學阿世

문 18.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訓民正音의 창제는 국어의 전면적 문자화라는 오랜 민족적 소망을 달성한 것이었다. 이 소망이 漢字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소적 문자체계로 실현된 것은 하나의 역사적 必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입으로 말하는 국어를 그대로 만족스럽게 적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기록들은 한결같이 世宗의 親製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으레 있을 수 있는 과장된 표현으로 돌리기 쉽다. 그러나 세종 25년 12월 이후에 훈민정음에 관계한 유신들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그 이전에 훈민정음에 관련된 일을 했음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훈민정음은 세종의 개인적 업적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훈민정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의 문자화하려는 소망은 이미 존재하는 문자 체계를 채택하여 다소 손질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古代의 漢字에 의한 국어 표기법의 발달도 이러한 一例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은 그들의 기원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게 몇 계통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그 어느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는 했으나 이미 굳어진 한문의 지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훈민정음은 창제 당초부터 諺文이라 불리어 한문의 重壓 밑에 놓이게 되었다. 士大夫 계층은 여전히 한문을 썼고 그 중의 소수만이 諺文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들도 특수한 경우에만 이것을 사용하였다. 즉 그 사용은 주로 詩歌의 表記, 漢文 典籍의 翻譯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 ① 훈민정음은 문자의 계통 상 예외적인 존재이다.
- ②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곧바로 언문일치가 실현되었다.
- ③ 세종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 ④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한문의 영향력이 바로 줄어들었다.

문 19. 문장 부호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②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③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 ④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문 20. 다음 글의 사례로 인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사랑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유사성에 대해 길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차이성에서 동일성으로 향하는 줄기찬 노력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동일성이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완전히 같아진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거니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사랑에 모순된다. 하나만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동일성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과국이다. 비록 사랑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동화애의 열정이고 다름 속에서 같음을 만들어가는 긴장 넘치는 과정이기는 하나, 차이를 모두 제거해 버린 동일화는 마침내 사랑마저 제거해 버릴 것이다.

- ① 사랑은 분신을 만드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 ②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 ③ 그 사람의 미덕과 인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된다.
- ④ 사랑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뇌와 인내에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